

# ‘허니허니 데이’

## 달콤한 꿀의 유혹

- 양봉협회 여성회, 대전 으능정이 거리서 12월 11일 개최
- 올해로 4회째, 시민 및 외국인 호응도 높아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허니허니 데이’가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지난 12월 11일(금) 성료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꿀을 선물한다는 뜻의 ‘허니 허니 데이’는 한국양봉협회 여성회가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따뜻한 벌꿀차와 우리 벌꿀에 버무린 가래떡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으능정이 거리는 마침 루미나리에(전구를 이용한 조명 건축물 축제) 점등식을 실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 보다 빛나고 화려한 행사가 되었으며 점등식을 구경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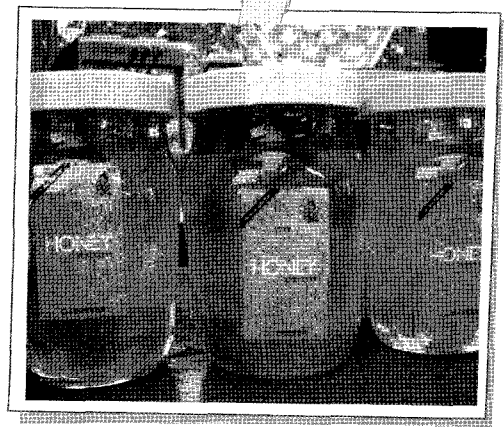
또한 추운 날씨에 따뜻한 벌꿀차와 달콤한 꿀떡은 점등식을 구경하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이를 시식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우리 꿀의 맛과 향에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김선희 회장은 “대전을 비롯해 서울, 충북, 충남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전에서만

열려 다소 아쉽다”며 “더 많은 준비를 통해 내년에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행사준비에 도움을 주는 양봉협회와 박근호 대전지회장 및 분회장님들과 궂은 날씨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준비와 홍보를 해주신 여성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협회는 허니허니 데이 홍보행사가 수익을 창출코자 하는 것이 아닌 순수 홍보행사인 만큼 내년 부터는 후원이 아닌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 행사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봉**



허니허니 데이 홍보용 스티커



곳은날씨에도 홍보에  
열중하시는 여성회원들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시식행사에 몰려드는 사람들



허니허니데이~~ 좋아요^^



벌꿀홍보에 앞장서는  
박근호 대전지회장님



분주한 여성회원들의 손길